

공공 인프라-인재양성-기술개발-실증-산업 항저우서 '모두의 AI' 길을 찾다

광주 대표단, 항저우 AI컴퓨팅센터·AI타운·육소룡 기업 벤치마킹 항저우, 중국 정부 전폭적·집적 투자로 '인공지능(AI) 심장' 우뚝

광주시가 정부의 집중 투자로 성공한 중국 항저우시의 인공지능(AI)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와 'AX 실증벨리'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했다.

공공의 인프라 투자-인재양성-기술개발-실증-산업을 잇는 '광주형 모두의 AI' 전략 고도화로 'AI 3대 강국 도약' 국가 비전 실현에 나선다는 것이다.

강기정 시장 등 광주광역시 대표단은 25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항저우에서 정부 주도 AI산업 핵심 인프라인 항저우AI컴퓨팅센터, 실증거점인 항저우AI타운, 인재양성의 산실인 저장대학교, AI 기업 등을 차례로 방문해 인프라 구축과 운영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대표단이 찾은 기관·기업들은 "정부(공공)의 전폭적이고 집적된 투자가 오늘의 항저우를 만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항저우AI컴퓨팅센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25개(5000 펫타플롭스) 공공형 컴퓨팅과 플랫톱(AI컴퓨팅센터)이 구축돼 기업, 대학(교육), 과학 연구 단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항저우시는 2019년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발전 시범구'

로 지정된 이후 정부 주도 아래 자국 기업인 화웨이의 자립형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구축했다. 이처럼 정부의 과감한 투자 아래 인공지능(AI)산업 발전의 가속화를 이뤄냈고, 중국의 AI 혁신기업 탄생에 마중물이 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 2017년 광주시가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택한 '국가AI데이터센터'와 'AI집적단지'가 유일한 공공형 AI 인프라다. 정부가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가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공공형 AI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광주에 인프라 추가 구축을 통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속도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뛰어난 만큼 기존의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시 활용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대표단은 저장대, 알리바바 등과 연계해 산업벨트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항저우 AI컴퓨팅센터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센터 운영 규모, 방식 등에 대해 꼼꼼



히 살펴봤다.

또 25일 중국 육소룡 중 3개 기업의 창업자를 배출한 저장대학교와 인재교류 협력의 물꼬도 뚫었다. 저장대는 딥시크의 광원평(梁文峰), 딥로보틱스의 주추귀(朱秋圃), 메니코어테크의 황사오황(黄晓煌) 등 중국 '육소룡(六小龙)' 3개 기업 창업가의 모교이자 AI인재 산실로 잘 알려져 있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항저우시 정부와 우호협력의 손을 맞잡은 데 이어 이날 저장대학교 마옌밍 총장 면담 등을 통해 인재양성의 실질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도대를 다졌다. 항저우시에서는 5G혁신파크 등 AI 실증거점의 성공 사례를 확인했다.

대표단은 저장대 방문에 앞서 이날 오

전 '제4회 디지털 무역 박람회'에 참석해 딥시크, 딥로보틱스, 브레인코, 게임사이언스, 메니코어테크, 유니트리 등 중국 '육소룡(六小龙)'을 부스를 찾아 휴머노이드 로봇 등 혁신기술을 살펴봤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항저우의 AI 인프라, 대학, 기업의 AI 성장을 보면서 대한민국 소버린AI를 향한 '광주의 길'이 맞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성공한 항저우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 AX실증벨리 조성,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켜겠다"고 밝혔다.

신영길 기자



전국기능경기대회 폐막... 광주 22개 메달 획득 전국 17개 시도 1725명, 51개 직종서 7일동안 기량 겨뤄

광주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26일 폐회식을 끝으로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60회 대회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위원장 김기현)이 주관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 1725명 51개 직종에 출전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광주지역 6개 경기장에서 갈고땀을 기량을 겨뤘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폐회식에서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주요 시상이 이뤄졌다. 직종별 1위 선수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600만원과 4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이들에게는 오는 2028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리는 '제49회 국제기능올

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자격과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함께 주어졌다.

광주시에서는 37개 직종 105명의 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6개, 은메달 9개, 동메달 7개 등 총 22개의 메달을 획득,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가 전국 우수 선수 육성기관에 주어지는 단체표창 '동탑'을 수상, 지역 기술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우뚝 섰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회는 전국의 젊은 기능인들이 광주에서 탐과 열정을 쏟아낸 값진 축제였다"며 "광주는 앞으로도 기능인재들이 세계 무대에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회식에서는 내년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개최지인 인천광역시에 대회가 인계됐다.

신종필 기자

김영록 지사,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특별예금 가입 영호남 상생협력 일환... 캠페인 참여 분위기 조성 기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APEC 성공 기원 특별예금' 가입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특별예금은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응원하는 전 국민 참여형 금융상품으로, 가입 기간은 1년이다. 1인당 1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NH농협은행 전

남도청지점을 방문해 예금에 가입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영호남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의 예금 가입은 개최지인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체장 최초로, 타 지자체장들의 가입 릴레이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 기자

전남도, 중국 칭다오에 전남 상설판매장 개장 간편 전복죽·김 등 수산물·음료 농산가공품 40여 종 입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민은 물론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전남 농수산물품의 인지도와 판매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25일 개장식에는 김동철 전남도 중국사무소장, 한승희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법인장, 양재경 칭다오한인회회장, 김문규 칭다오호남향우회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매장 운영에 대한 설명과 제품 소개,

시식 행사 등이 진행돼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칭다오 상설판매장은 전남 농수산물품의 중국 진출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시식 행사, 공동구매 판권전 등을 통해 교민과 현지 소비자 모두가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물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

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8월 기준 대중국 전남 농수산물품 수출액은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번 에 문을 연 칭다오 상설판매장을 포함해 4개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8일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올해 쌀 생산단수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정부양곡 대여(5만 5000t)를 추진하면서 생산자단체와 산지 유통업체 의견을 수렴했는데, 현장에서는 작황이 지난해보다 좋고 도정수율도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농경연은 앞서 23일 청주 농업관측세종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올해 일조시간 증가와 일교차 확대 등 기상 여건이 좋아 벼 생육이 양호하고, 평년(10a당 518kg)보다 생산 단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쌀 작황 평년보다 양호... '햅쌀 판매되면 가격 안정' 농경연 등, 평년 대비 생산량 높을 것으로 관측

고 진단했다. 또 2024년산 정부양곡 대여(5만 5000t)의 반납 물량을 감안해도 올해 쌀 생산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2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을 토대로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어 다음달 13일에는 정부, 생산자, 유통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2025년 쌀 수확기 대책'을 확정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작황을 감안하면 쌀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소 과잉이 전망된다"며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작황과 쌀값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작황이 평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햅쌀 판매가 시작되면 쌀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28일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올해 쌀 생산단수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정부양곡 대여(5만 5000t)를 추진하면서 생산자단체와 산지 유통업체 의견을 수렴했는데, 현장에서는 작황이 지난해보다 좋고 도정수율도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농경연은 앞서 23일 청주 농업관측세종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올해 일조시간 증가와 일교차 확대 등 기상 여건이 좋아 벼 생육이 양호하고, 평년(10a당 518kg)보다 생산 단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시스

